

믿음에 의한 의롭다 함

창세기 15:1-7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보아 왔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다. 자기 조카 롯과 헤어졌지만 소돔 땅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조카를 위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싸움에 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많이 자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는 뒤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람에게 내렸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람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는 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가 어떤 일로 인해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기습공격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적들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그냥 있지 않겠지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금방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은 커녕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음생활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즉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자기를 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의가 아브라함의 가슴에 엄습해 되자 그는 그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라는 회의가 생겼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안되고, 삶이 어려워지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가?’ 라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려움은 총이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행적은 한 순간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라고 말한다고 저절로 용기가 생길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절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 투정을 부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3 절에 “그러자 아브람이 대답하였다. '여호와 나의 주님, 주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해야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람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내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려움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놓은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였습니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람의 집 재산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집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아니다. 네 종이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희미하게, 우리가 헛갈리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겐 하나님보다 다른 믿는 것이 이 세상엔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같은 경제력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 권력과 사회풍조를 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상식적이라도 넘어지고, 아무리 지식인이라 해도 실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못 믿으면 결국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그렇기 못 믿니?’ 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을 밖으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데리고 나가서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5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가 있겠느냐? 네 후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 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번개가 치듯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롬 10:17 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는 동안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자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고, 그의 얼굴에는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그 비전과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6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람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6 절을 개역 한글성경으로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위기에서 구해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제의하는 소돔왕의 제의를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적인 행동이나 열심 있는 봉사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봉사나 희생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히 11:6)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경험은 모자라도, 지식이 모자라고,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